

월요광장



정 봉 남
순천기적의도서관장

연말이 되니 부쩍 여러 안부가 당도한다. 잊고 지낸 시간들이 훌쩍 건너와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한다. 시는 게 뭐라고 이토록 무심했을까 싶어지는데, 오래 그리워한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그 시절로 돌아가는 마법을 곧잘 부린다.

“드디어 수능이 끝났어요. 이제 곧 제가 성인이 된다는 게 믿어지세요?” 엇그제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은 큰 숙제를 마친 흥분분함으로 안부를 전하고,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아, 저는 이만끔밖에 안되는 걸까요?” 위로가 필요한 ‘취준생’들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는 말로 외로움을 전한다. “바빠? 통화해도 돼?”라며 묻는 친구는 말뚱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보낸다.

알려 주고 싶은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걸 털어놓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삶에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생각하는 사람이 평소 그리운 이들이었음을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알게 된다. 기쁨 때보다 슬플 때,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 생각나는 그 사람과 우리는 연결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토 달지 않고 지적질 하지 않고 마음 알 아주는 것이 최고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한답시고 옳은 소리만 해 대지 않아야 다행이다.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다정한 응원이니까. 도움을 주겠다고 비판과 독설을 날리면 구구절절 옳은 말에 그만 정나미가 똑 떨어지는 경험을 해 본 사람은 안다. 다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누군가에게 말하다 보면 스스로 상황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삼십 년 만에 동창들을 만났다. 엇그제 만난 소녀들처럼 반가웠고, 만나자마자 까르르 여고 시절로 돌아갔다. 언니 같은 담임 선생님과 다양한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었다. 한 명씩 도착할 때마다 끌어안고 퐁퐁퐁퐁 뛰었다. 퇴직하고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썩썩하고 밝아진 친구들도 자랑스럽고 예뻐다. 청바지 입고 모이러더니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깊은 뜻이 있었다고.

도란도란 모여 앉아 친구들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넌 지금도 책이 그렇게 좋아?”면서 그 옛날의 일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내는 친구들의 기억력에 한껏 웃었다. 그 시절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공간을 넘나들었다. “너는 그때도 웃음이 많았고, 넌 손재주가 좋았고, 넌 우리를 고민을 잘 들어줬어.” 인생의 한때를 풍요롭게 채워 준 이런 ‘나’가 있어 소년은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되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

나이 들어 만나니 좋은 것은, 우정 같고 연애 같은 질투라든가, 준 것 없이 미운 마음들, 자기 처지에 대한 예민한 방어심 같은 것들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더 자유로웠다 는 것이다.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 웃다가 코 끝 찡해지면서 고개를 끄덕일 때 지금 마주한 우리는 모두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 여겨졌다. 조만간 손재주 많은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모여 송년회를 하기로 했다. 그 친구의 공간은 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는 것만도 설렌다.

살아가는 게 늘 목마르고 아픈 일이어서 나는 자주 길을 잃었더랬다. 그때마다 결에서 힘이 되어 준 인생의 벗들이 참 많았다. 그들에게 배운 것을 지금의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흘러보내는 중이다. 그들이 언제나 손으로 매만진 것들을 건네주길 좋아했다. ‘손글씨’와 ‘손그림’ 같은 것들에는 따스함이 있다. 손끝

의 정성에 뭉클 감동하고 좋아하며 답장을 보내는 사이 힘이 냈고 든든했고 행복해졌다. 그때마다 나도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답장이 작은 잎을 편지에 넣어 보내며 “올해 우리 도서관 마지막 인쇄입니다”하고 얘기하면 작고 빨간 그 나뭇잎이 특별해지는 것처럼.

한 해의 매듭을 짓는 달에 서서 ‘지금, 여기!’를 돌아보면 고맙지 않은 것이 없다. 담담히 기뻐할 일 많은 해였다. 뜻밖의 선물 같은 여행이 그렸고, 외로우니까 사람이었던 시간이 그렸고, 먼지 같은 나를 찬란히 비춰 주는 햇살의 사람들이 그렸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배부르면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 습성이 있으니, 늘 새로운 길의 모퉁이를 돌게 해 준 고통에게도 오늘은 고맙다 말해 주어야겠다.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러나 붉고 순정한 마음으로 사랑이 깃든 일에 오래 머물자고 다짐한다. 살고 배우고 보살피고 나누고 축하하고 사랑해야 할 시간이다. 한 순간이 생의 전부라는 걸 잊지 않고 뚜벅뚜벅 걷는 길에 햇살과 바람이 머물다 간다. 내일도 오늘처럼 뚜벅뚜벅 걸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아름답고 따스한 삶의 주인 되시라고 두 손을 모은다.

법조칼럼



송 창 운
법률사무소 무진 변호사

얼마 전 결혼식을 마치고 유럽(8박 10일)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파리를 거쳐 베니스, 피렌체, 로마에 들러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겨우 열흘 정도 지났을 뿐인데, 내가 정말 유럽에 갔다 왔나 하는 생각이 등 정도로 꿈처럼 느껴진다.

집 현관에 붙어 있는 에펠탑 모양의 자석,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 그림이 그려진 자석 등이 내가 파리와 피렌체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태어나 제일 먼 곳에서 가 보았다. 책과 사진,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유적이나 문화재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다. 에펠탑은 웅장했고, 베르사유 궁전은 위용찬란했으며, 모

가이드

나리자는 북새통 안에서도 방한 유리에 싸여 그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비티칸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은 종교가 없는 내게도 성스러움을 느끼게 해 주었다. 가이드는 유명한 유적지들을 안내해주며 그 역사와 의미를 연도와 사람 이름까지 콕콕 짚어가며 보고 읽는 것처럼 읽어 주었고, 아내와 나는 “아 그렇구나!” 하는 감탄사만 내뱉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맛집이나 또 다른 볼거리,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자세히 알려 주었다. 공간적인 배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편했다.

가이드가 제 할 일을 마치고 떠난 이후의 시간은 여행자에게겐 완전히 낯선 세계가 됐다. 자유롭지만 불편했다. 음식의 경우 메뉴판을 봐도 주문하기가 쉽지 않았다. 비즈니스에서는 점원이 추천한 파스타를 먹고 9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기도 했다.

그래도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파스타였고, 들어보니 다른 여행자들도 그런 바가지들 쓴 경험이 있다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여행지라는 낯선 곳에서 우리는 새로

운 경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익숙했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낯선 곳의 불편함은 일시적이고, 우리는 여행지에서 원래 있던 익숙한 곳으로 돌아오고,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를 반겨준다. 돌아올 수 있기에 떠나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재판이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사람에게 위와 같은 달콤한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부당한 요구를 뿌리치기 위해서든 분쟁의 당사자가 돼 재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다.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고 있는 덕분에 법률 용어에는 어느 정도 익숙하겠지만, 그들 역시 여행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낯선 환경에 놓인 여행자에 불과하다.

그분들에게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길을 잘 알려주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내가 신혼여행에서 만났던 분들과 같은 가이드가 필요하다. 내가 과연 그와 같은 가이드인지 묻게 된다.

개업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질문을 많이 했다. 써야 할 서면은 많고 시간은 없으니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빨리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선 차분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으로, 내 판에는 성실하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을 미처 다 못해 불만을 갖는 의뢰인이 있기도 했다.

지금은 의뢰인들이 되도록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야기가 사건 본질과 너무 동떨어졌을 때에만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

의뢰인들은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고 한 이후 나는 그 앞에 가만히 앉아 기다린 했을 뿐인데도 고맙다는 말을 건네기도 한다. 그럴 때는 내 마음도 흥분분해진다.

신혼여행 때 만났던 가이드를 통해 낯선 곳에서 별다른 불편함 없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 돌아왔다. 이제 내가 그분들과 같은 가이드가 돼 낯선 곳에 발을 들여야 하거나 이미 들여놓은 의뢰인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세계에서 무사히 웃으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기고



김 병 태
광주대인치과의원 원장

올해로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째다.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12월12일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날이다. 그 현장에서 광주의 한 젊은이가 송고하게 산화했다. 어쩌면 광주민주화운동의 시작이고 최초의 희생자이다.

1979년 12월 12일 당시 23세였던 정선업 병장은 국방부 헌병대 소속으로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었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무력에 굴복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 했다. 박희도

정선업 병장 기념수를 아시나요?

1공수여단장 병력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정 병장은 “아무도 들어보일 수 없다”며 강력히 맞섰다. 결국 그는 국방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신군부에 맞서 끝까지 싸우다 산화했다.

살기 등당한 1300여 명의 공수부대가 총을 난사하자 이미 기가 꺾인 경비병들이 총을 버리고 손을 들고 말았던 그 현장에서 광주의 젊은이는 당당하게 맞섰다. 자신의 총을 빼앗으려던 공수부대에 맞선 정 병장은 단호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발길질을 한 순간 공수부대원들의 총구는 불을 뿜고 말았다. 물론 총격전이 있었으니 반란군 측에서도 희생자가 있었다. 반란군 측이었던 박모 상병은 수경사 33헌병대 소속으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조로 동원됐다.

정 병장이 산화한 그날 어머니 한점순 씨는 혼절했다. “아들에게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영알에서 국군통합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아들은 피범벅이 된 채 어머니를 맞았다. “곧 제

대해 편히 모시겠다”는 아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어머니에게 돌아왔다.

그 후 가족들은 진실을 모른 채 숨죽여 살다가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후야 한 병사로부터 ‘정 병장의 죽음의 진실’을 전해 듣고 또 한 번 통곡해야 했다. 그날 초병들이 거의 다 투항했지만 정 병장만이 유일하게 위치를 사수했다고 한다.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간 정훈재(당시 주택은행 지점장)씨는 분노했다. 정씨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갔더니 박 상병과 동생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며 “둘 다 억울하게 숨진 것은 마찬가지인데 박 상병은 신군부 쪽이어서 당당하게 장례를 치렀다. 동생은 진압을 당한 임장이라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처음에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가족들의 탄원에 못 이겨 신군부는 뒤늦게 국립묘지 한 귀퉁이를 내주었다. 세상을 떠난 아들처럼 어머니도 지금은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가슴에 품고 생을 살다 가신 것이다. 가족은 풍비박산났

다. 그 일 이후 형은 목회자의 길로 나가 가서 지금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당시 사망한 김오랑 중령은 육사 동기들의 노력과 정치권의 관심으로 뒤늦게나마 추모비와 훈장이 추서됐다. 그런데 초병으로 끝까지 임무를 다하다 숨진 정 병장에게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어떤 훈장을 추서되지 않았다. 훈장도 계급에 따라 추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 정선업 병장은 광주 동신고를 졸업하고 조선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필자와는 고교에서 광주흥사단 활동을 함께하는 등 동문 수학적 사이다. 그래서 동신고 총동창회에서는 정 병장을 기억해야 할 동문으로 정해 지난 5월에 모교에 소담한 기념수를 심었다. 학교 재단과 유선 교장 선생님과 임현모 총동창회장의 노력이 있었다.

매년 12월 12일이면 의로운 군인 정선업이 더 생각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다. 그는 서울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 8묘역 2관 38315호에 묻혀 있다.

社說

호남권에 두 개의 국제공항 타당성 있나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에 포함되면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던 무안국제공항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관제사 부족에 따른 야간 운항 제한에 이어 최근 거리에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주 확정된 내년 국비 예산에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광역도 가운데 전북에만 국제공항이 없고, 2023년 세계적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10억 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애초 정부 부처에는 빼졌던 이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반영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제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의 전북과는 대조적으로 전남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생기면 무안국제공항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

으로 건설된 무안공항은 공주 등 충남 일부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여객이 주요 타깃이다. 무안공항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 등지를 여행하는 승객의 20~30%가 전북 지역민임을 감안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되면 익산~무안공항 간 소요 시간은 40여 분에 불과하다. 거리뿐만 아니라 인구 520만 명의 호남권에 과연 또 하나의 국제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지자체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웃 지자체에 영향을 미쳐 자칫 공멸이 우려된다면 심사숙고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서는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꼭 국제공항이 필요하면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시기를 늦추는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SRT 1년, 역의 유출 막을 대책 고민할 때다

호남선 KTX 개통(2015년 4월2일)에 이어, SRT가 지난 9일로 개통 1년을 맞으면서 호남선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광주~서울을 1시간 29분에 주파하는 SRT 개통은 역의 유출의 고착화·심화라는 위기를 몰고 왔다.

KTX 개통 이후 광주신세계백화점 카드 발급자의 쇼핑 금액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들이 서울 등 타지역에서 쇼핑한 금액은 연간 900~950억 원에 달했으나 SRT 개통 첫 해인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이외의 현금 사용액을 합하면 역의 유출은 1250억 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 피부과·성형외과 등 비급여 수술 병의원들도 SRT 개통에 맞춰 지난해부터 수도권 병원들이 수술비용을 대폭 낮춘 탓에 상당한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병원의 수술비를 들먹이며 비용 할인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SRT 이용객을 위해 수서역에 서틀버스를 운영하고, 지방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수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함에 따라 지역 대학병원들은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SRT를 이용해 광산구 송정시장을 비롯한 송정역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이에 맞춰 호텔 등 숙박 시설이 속속 개설되는 등 관광산업이 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광산구는 KTX개통을 전후해서는 관광업계와 의료계·언론계·학계 등으로 대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대구시와 같은 ‘빨대 효과’를 피할 수 있었다.

이제 SRT 개통 효과의 명암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관광 분야의 경우 송정역과 문화전당~양림동 역사문화지구~남광주·대인 야시장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독일 출신 유대인 학자 에리히 프롬(1900~1980)의 명저 ‘소유냐 존재냐’는 시대를 넘은 고전이다. 프롬은 이 책에서 “소유는 사용에 의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탕에 두고 있다. 하지 만 지적 창조력이나 이성, 사랑 같은 존재적 가치는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소유에 기반한 실존 양식은 물질에 가치를 둔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삶의 목표이며,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가치 척도

말았던 박제현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대저주었던 박제현은 ‘소유적 양식’보다 ‘존재적 양식’을 추구했던 대인(大人)의 표상이라 하겠다.

김재에 있는 금산교회에도 앞서 든 예와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당시 대이트라는 선교사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조덕삼(1867~1919)과 이자익(1882~1961) 역시 집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다. 공교롭게도 둘은 장로 후보로 지명됐는데, 머슴인 이자익이 장

소유냐 존재냐

로로 선출된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도와 교회를 섬겼고, 신학을 공부하도록 뒷받

침까지 한다. 또한 후일 이자익이 금산교회 목사로 부임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보필한다. 갑부 조덕삼의 일화 역시 존재론적 가치를 지향했던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보여 준다.

황간에 “다스는 누구 소유입니까?”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다. 재민 시절 섬김의 리더십을 임버처럼 말하던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여전히 다스 소유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을 역임했던 지도자가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존재’를 부정당하는 불행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